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발행 2023년 2월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총정빌딩 9,10층

## Contents

1. 2022년 실태조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현주소\_ 이상아
2. 자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자활 패러다임의 전환 : 정서적 자활과 자활 행동을 중심으로\_ 최상미

# 2022년 실태조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현주소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 1. 서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 사회의 빈곤층은 더욱 두터워지고, 공고해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록하면서, 시장소득<sup>1)</sup> 분배지표는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분위 소득계층의 충격이 다른 계층에 비해 1.8-4.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사회동향, 2021). 또한,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근로능력 빈곤층의 소득 및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일용근로자는 17만 5천 명이 감소하였고 이 추세는 2022년까지 이어져 최근 기준(2022.11) 일용근로자는 8만 4천 명이 감소하였다. 정부는 근로빈곤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소득 보장 차원에서 근로빈곤층을 위한 현금지원에서부터 장기적 차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활사업은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주요한 제도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시행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사업으로 존재해왔다. 자활사업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근로기회 제공, 근로역량 강화, 취업알선, 자활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왔다. 자활사업은 지난 20년간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활기업 창업지원,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시작과 확대, 자활참여자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자활사업으로의 이분화 배치, 차상위층까지 자활사업 대상의 확대, 자활장려금 등을 통한 자활급여의 증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운영 등 근로빈곤층에게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제공하였다.

한편,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및 “근로 및 자립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 등 시스템 보완” 등으로 설정되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과 제3차 자활사업 기본계획 수립도 예정되어, 자활사업 확대와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활사업의 환경 및 제도적 변화와 함께, 자활사업의 내부에서는 낮은 근로능력, 다차원적 문제를 가진 참여자의 증가, 청년의 증가와 같은 참여자들의 특성 또한 변화를 겪어왔다. 자활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여, 2022년 12월 기준 51,195명에 달한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 제도적으로는 자활사업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복지 및

1) 시장소득으로 「가계동향조사」에서 정의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값

고용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천적으로는 자활참여자의 능력·상황 등에 맞춰 자활을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 상태 혹은 참여자들의 심리적·정서적 변화 등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행복e음이나 자활정보시스템의 행정 데이터만으로는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2002년도부터 중앙 단위에서 자활사업 실태조사가 수행되었고, 중앙자활센터에서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구축이 진행되었지만, 2019년부터 자활사업의 참여자가 급증하였음에도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2022년에 전국 시군 250개 자활사업 참여자(GATE WAY 포함) 5,000명을 대상으로 근로 빈곤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용 및 복지서비스 개입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자활사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GATEWAY 포함)를 대상으로 2022년 6월 15일에서 2022년 7월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활 실태조사 응답자 수는 모두 4,888명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실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자활사업 참여자의 현황

### 1) 일반적 특성

자활사업 실태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 참여자는 모두 4,888명으로 여성이 55.7%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50-59세가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49세 23.1%, 60세 이상 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45.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참여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자활역량점수는 60점 이상 79점 이하가 39.5%, 45점 이상 59점 이하 33.9%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수급유형은 조건부수급자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수급자 28.8%, 차상위자 13.1%, 자활특례자 1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1〉 참여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전체		4,888	100.0	참여개월 구간	6개월 미만	265	5.1
					6개월 이상 1년 미만	555	10.7
성별	남성	2,164	44.3		1년 이상 3년 미만	2,344	45.4
	여성	2,724	55.7		3년 이상 5년 미만	1,279	24.8
연령	29세 이하	555	11.4		자활역량변수	5년 이상	448
	30-39세	492	10.1	45점 미만		725	14.0
	40-49세	1,129	23.1	45점 이상 59점 이하		1,751	33.9
	50-59세	1,677	34.3	60점 이상 79점 이하		2,041	39.5
	60세 이상	1,035	21.2	80점 이상		374	7.2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학력	무학	97	1.9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1,489	28.8
	초졸	366	7.1		조건부수급자	1,846	35.7
	중졸	683	13.2		자활특례자	655	12.7
	고졸	2,366	45.8		차상위자	676	13.1
	대졸	692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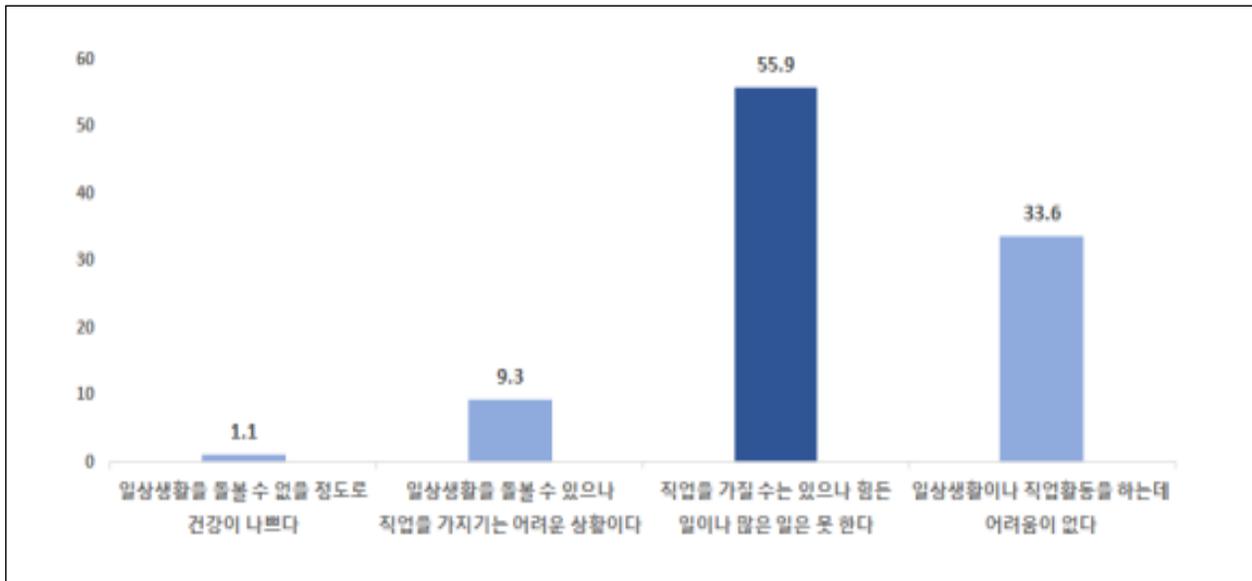
자료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 2) 신체적·정신적 근로 능력

참여자의 신체적 근로 능력을 확인한 결과, 작업을 가질 수는 있으나 힘든 일이나 많은 일은 못 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이나 작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33.6%),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으나 직업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9.3%), 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1.1%) 순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노동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특성별로 비교한 확인한 결과, 자활역량점수가 낮은 집단(45점 미만, 45점 이상-59점 이하)에서 고강도 노동이 어렵다고 체감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기간에 따라 고강도 노동에 대한 체감 정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매우 짧거나(6개월 미만), 장기적(5년 이상)일수록 고강도 노동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1〉 참여자의 신체적 근로 능력상태



자료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표 I-2〉 특성별 고강도 운동 어려움 정도

(단위 : 점)

구분		고강도 노동	구분		고강도 노동
종합		2.52	6개월 미만		2.7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65	참여 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2.58
	45점 이상 59점 이하	2.66		1년 이상 3년 미만	2.58
	60점 이상 79점 이하	2.56		3년 이상 5년 미만	2.63
	80점 이상	2.55		5년 이상	2.66

자료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참여자의 정신적 근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서 간이정신진단 검사(BSI-18)<sup>2)</sup>를 활용하였다.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신체화<sup>3)</sup> 평균 11.8점, 우울<sup>4)</sup> 평균 13.9점, 불안<sup>5)</sup> 평균 12.6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특성별로는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화와 불안 평균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체화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자활역량점수 구간별 보면 45점 이상 59점 미만 그룹에서 신체화, 우울, 불안 정도가 여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인 영향으로 신체기능을 자유롭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신체화의 경우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활역량점수가 45점 이상 59점 미만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활사업단 근로 특성상 공동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창업 중심의 자활사업 구조상 이러한 참여자의 특성은 공동체 작업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I-3〉 자활참여자 특성별 간이정신건강진단

(단위 : 점)

		신체화		불안		우울	
종합		11.8		13.9		12.6	
성별	남성	11.2	52.343***	12.0	54.617***	14.0	1.651
	여성	12.2		13.0		13.8	
연령	29세 이하	10.1	24.620***	12.4	0.423	13.7	1.469
	30-39세	11.2		12.7		14.0	
	40-49세	11.9		12.6		13.7	
	50-59세	12.2		12.6		14.0	
	60세 이상	12.2		12.5		14.2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11.7	5.491**	12.3	1.591	13.9	1.926
	45점 이상 59점 이하	12.1		12.8		14.1	
	60점 이상 79점 이하	11.6		12.5		13.8	
	80점 이상	11.5		12.5		13.7	

자료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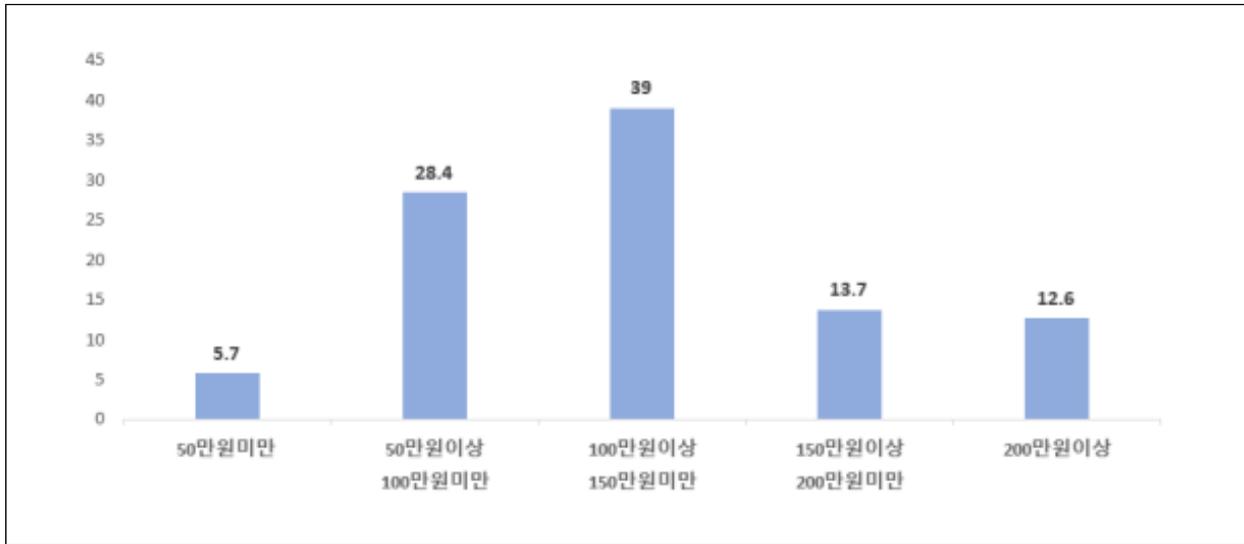
2) Derogatis가 제안한 불안, 우울, 신체화 등 각각 척도들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Derogatis, 2001). (1) 심리학적 장애를 동반한 불안 및 우울장애를 80%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제로 1차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불안과 우울 장애들은 신체적 증상들을 많이 일으킨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간편하고 빠르게 측정 가능한 검사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3) 신체화의 경우 심장혈관, 위장장애, 기타 심리학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적인 증상체계로 인한 신체역기능적인 지각을 묻는 문항  
 4) 우울의 경우 자살사고, 절망감, 무쾌감증, 자기비하, 불쾌한 기분에 영향을 주는 증상을 묻는 문항  
 5) 불안의 경우 공황상태, 염려, 안절부절 못함, 긴장, 신경질적인 증상을 묻는 문항

### 3) 경제적 기반

자활사업 참여자의 월평균 가구 생활비 규모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39.0%로 가장 높고,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28.4%),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2〉 월평균 가구 생활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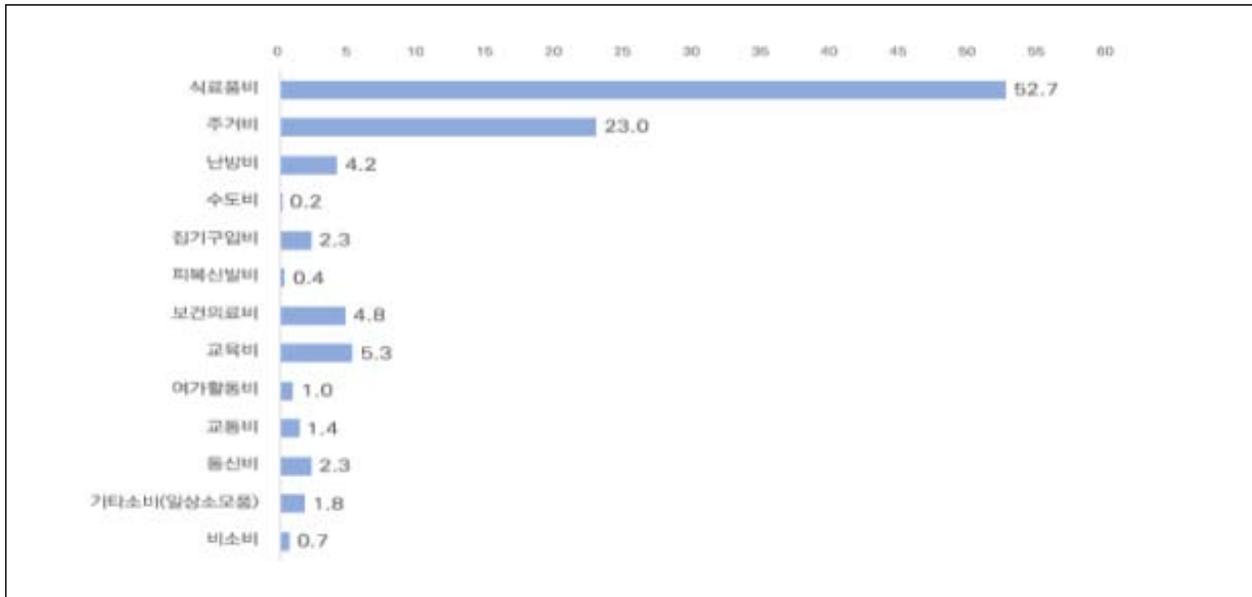


자료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식료품비가 52.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주거비(23.0%), 교육비(5.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소비조차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3〉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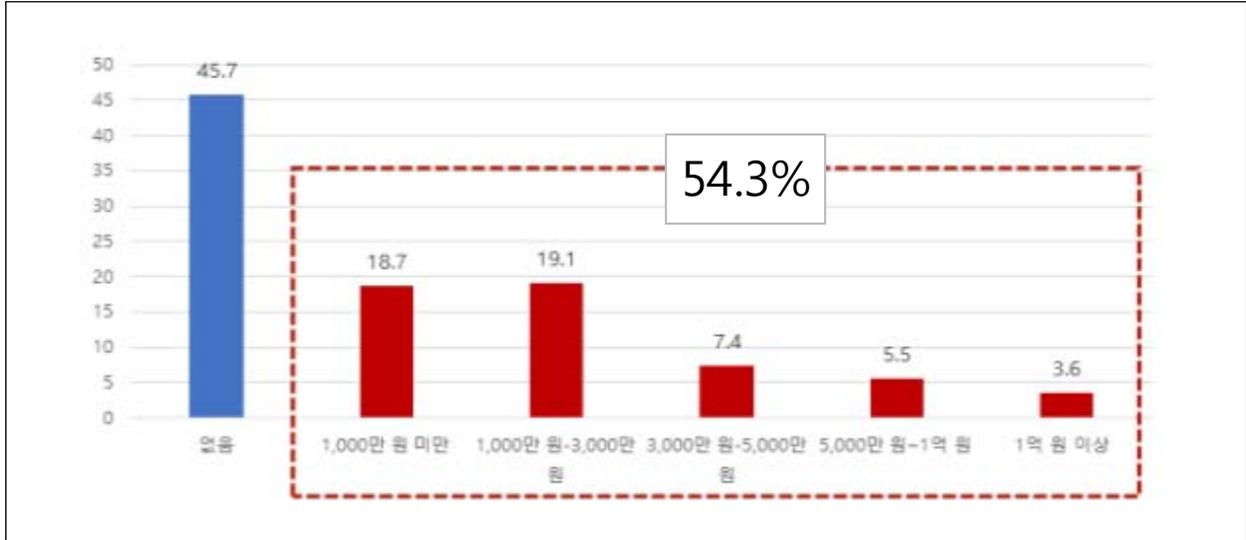


자료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자활사업 참여자 중 개인부채가 있는 비율은 54.3%로 그 중 부채규모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9.1%, 1,000만 원 미만이 18.7% 등 순으로 소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대다수였다. 특성별 부채 규모를 살펴보면 5,000만 원 이상 부채 금액이 가진 참여자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50-59세, 60세 이상에서 여타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I-4〉 총 개인 부채(종합)

(단위 : %)



자료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표 I-4〉 총 개인부채(특성별)

(단위 : %)

		없음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3,000만 원	3,000만 원~5,000만 원	5,000만 원~1억 원	1억 원 이상
성별	남성	45.5	23.5	16.6	3.1	7.5	3.7
	여성	45.9	26.7	17.3	2.8	5.7	1.7
연령	29세 이하	69.9	22.0	6.5	.5	.7	.4
	30-39세	45.5	31.3	16.7	2.0	3.9	.6
	40-49세	42.2	26.0	18.8	3.5	6.9	2.6
	50-59세	39.7	25.5	19.6	3.2	8.3	3.6
	60세 이상	46.2	23.0	16.6	3.7	7.5	3.0

자료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금융자산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1.5%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 원 미만(13.1%), 100만 원~300만 원(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금융자산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40-49세, 50-59세에서 금융자산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5〉 구간별 총 금융자산(특성별)

(단위 : %)

		없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종합		51.5	13.1	12	6.1	7.8	9.5
성별	남성	55.5	11.7	12.6	6.0	6.6	7.8
	여성	48.3	14.3	11.6	6.2	8.7	10.9
연령	29세 이하	55.1	12.1	13.0	4.7	8.8	6.3
	30-39세	53.5	12.8	12.2	5.1	7.9	8.5
	40-49세	49.5	13.2	13.2	5.6	7.8	10.7
	50-59세	49.3	13.6	12.3	7.0	7.3	10.5
	60세 이상	54.1	13.0	9.7	6.6	7.9	8.7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64.4	12.9	8.7	2.3	3.4	8.3
	6개월 이상 1년 미만	58.1	15.5	9.0	5.4	4.9	7.0
	1년 이상 3년 미만	51.0	12.8	13.3	6.1	8.2	8.6
	3년 이상 5년 미만	47.8	11.7	11.6	7.3	9.1	12.5
	5년 이상	48.0	16.3	12.3	6.0	8.3	9.2

자료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주목할만한 점은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자산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 59.9%가 자산형성 통장사업 외 월평균 저축액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관련하여 참여 기간별 월 소득을 살펴보면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활사업 기본급여와 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수익금 인센티브 성격의 자립성과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자산형성 통장 적립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 빈곤층이 자산형성과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I-6〉 참여자 특성별 월 소득

(단위: 만원)

구분		자활기본급여	자립성과급	자산형성 통장 적립금	공적이전소득
전체		93.4	9.7	5.5	14.8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85.6	1.5	1.9	19.1
	6개월 이상-1년 미만	85.2	1.3	2.3	16.3
	1년 이상-3년 미만	94.5	11.0	5.2	13.3
	3년 이상-5년 미만	95.7	12.1	7.8	17.3
	5년 이상	96.1	11.0	5.8	11.3

자료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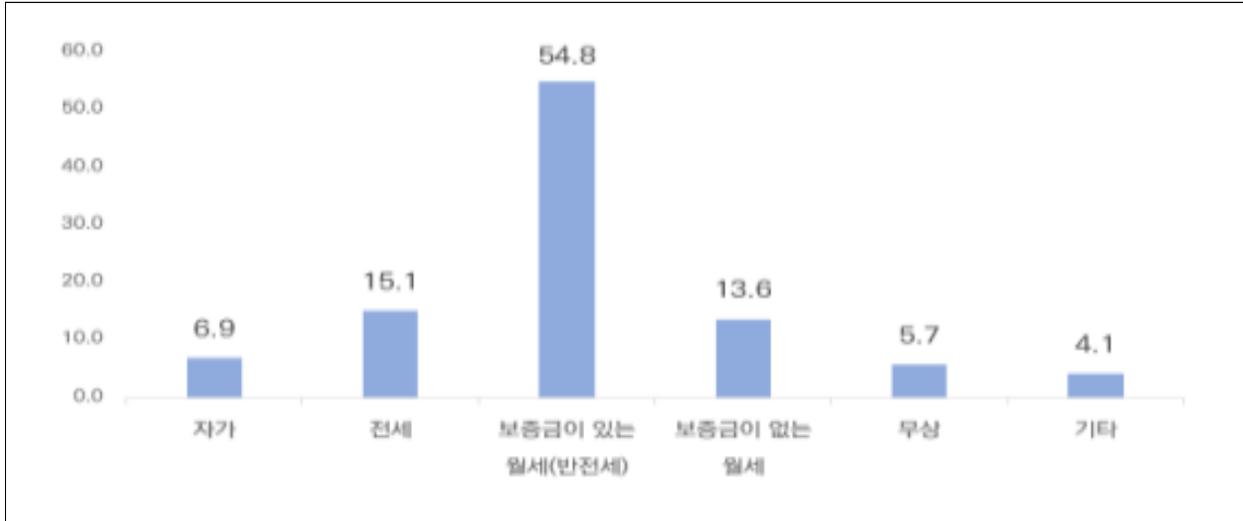
#### 4) 사회적 기반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자활근로를 지속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사회적 기반이다. 관련하여, 주거형태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지 확인 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주거

형태를 보며, 보증금이 있는 월세(반전세)가 54.8%로 가장 높으며, 그 뒤 전세(15.1%), 보증금이 없는 월세(13.6%), 자가(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5〉 주택점유형태(종합)

(단위 : %)



주거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수급유형 중 조건부수급자(7.0%)에서 당장 이주해야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기간 초기에 주거 안정성이 낮으며,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늘어날수록 주거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7〉 주거 안정성

(단위 : %)

		당장 이주 필요	1년 이내 이주 필요	2년 이내 이주 필요	4년 이내 이주 필요	원하는 만큼 거주 가능
종합		6.3	13.2	18.5	7.1	55.2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0.6	16.7	23.1	5.7	43.9
	6개월 이상 1년 미만	8.3	16.4	17.3	5.8	52.2
	1년 이상 3년 미만	6.5	14.8	18.9	7.2	52.7
	3년 이상 5년 미만	4.3	9.0	18.8	8.2	59.7
	5년 이상	3.1	8.9	14.5	6.0	67.4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6.6	13.1	19.1	6.2	55.0
	45점 이상 59점 이하	6.7	12.7	18.1	7.1	55.4
	60점 이상 79점 이하	5.5	13.4	18.3	7.5	55.3
	80점 이상	4.8	12.0	20.9	7.0	55.3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2	13.0	16.9	7.0	57.9
	조건부수급자	7.0	14.3	19.7	7.8	51.2
	자활특례자	6.0	11.8	20.0	6.3	56.0
	차상위자	4.3	9.5	16.1	6.7	63.5

한편, 주거와 같은 물리적 차원의 기반과 더불어 관계 중심의 사회적 지지기반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중 동거가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8.1%로 나타나 가족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동거인 없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가족 지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7점 만점에 평균 4.10점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족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역량점수가 45점 이상 59점 이하에서, 60세 이상이 상대적으로 가족 지지가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활역량이 낮고, 연령이 높고, 남성 참여자일수록 가족지지 기반이 불안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8〉 가족지지 정도

(단위: 점/7점 만점)

구분		가족지지	구분	가족지지	
종합		4.10	연령	29세 이하	4.28
성별	남성	3.82		30-39세	4.14
	여성	4.32		40-49세	4.27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4.03		50-59세	4.12
	45점 이상 59점 이하	4.00		60세 이상	3.75
	60점 이상 79점 이하	4.16			
	80점 이상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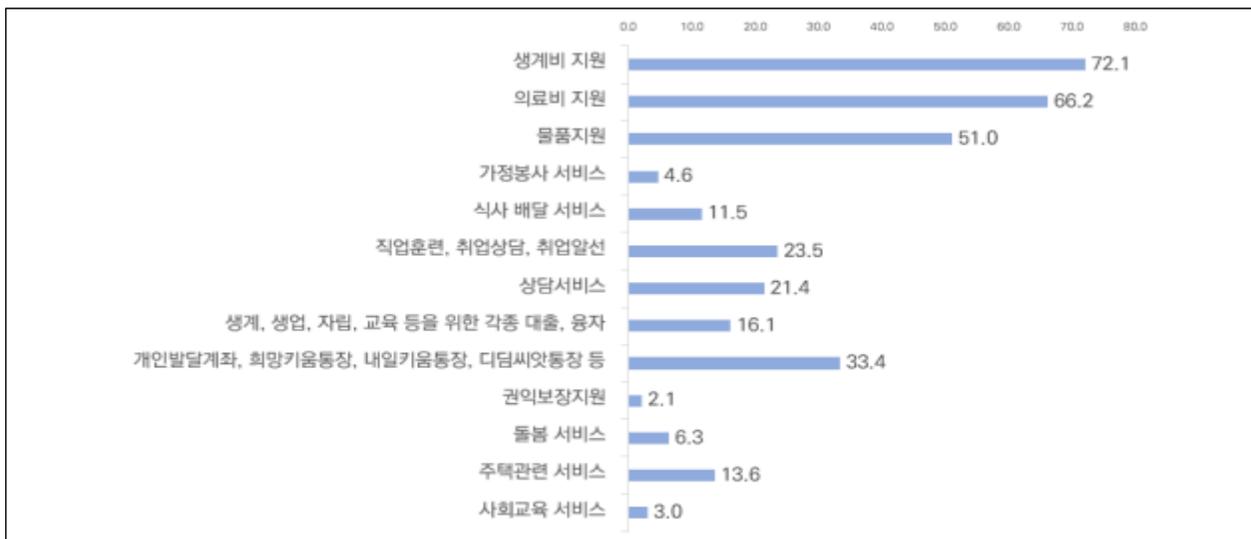
자료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 5)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자활사업 참여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회서비스로는 생계비 지원이 7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66.2%), 물품 지원(5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서비스 연계가 중요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정신 건강 및 사회적 기반이 약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는 상담서비스나 돌봄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 등이 필요함에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I-6〉 사회서비스 이용현황(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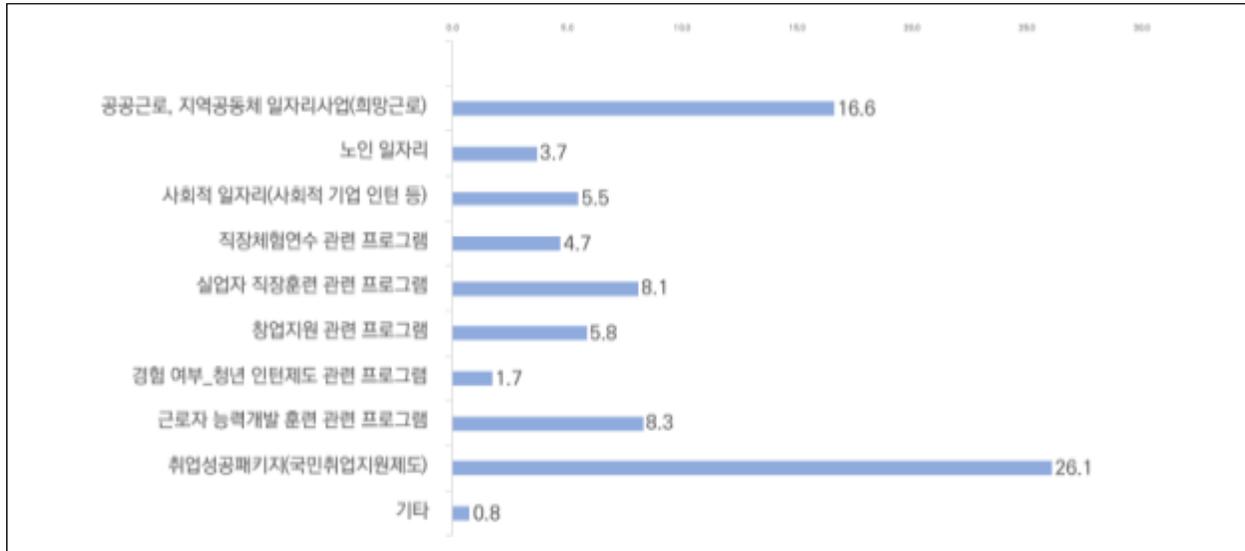
(단위: %)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은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가 2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희망근로)(16.6%), 근로자 능력 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제도 참여 종료 이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이 확인되었고,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경험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체계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그림 I-7〉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종합)

(단위 : %)



## 4. 나가며

본 실태조사를 통해 제3차 기본계획을 세우는 현시점에서 2022년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의 현주소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에 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참여 기간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개선되는 점 고려했을 때,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매개일 수 있다. 즉,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완화시키고, 스스로 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활사업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개선 효과를 감안할 때,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건강상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자활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조사 결과 자활사업이 경제적 기반이 되는 동시에 물리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주요한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자활사업단 참여자의 사회적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연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 참여자 집단 내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또한,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참여자 개별 사업단 재구성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본 실태조사는 자활정보시스템 정보와 연계하여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근로능력과 경제적, 사회적 기반 현황과 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동시에 현재의 자활근로 사업 및 향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에, 자활사업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및 가구 여건 등에 대한

행복e음 정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과거 근로이력과 고용관련 사업 참여 이력 등을 종합한 통계 자료 분석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법제화 혹은 통계적 승인 기반 마련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 조사가 국가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자활사업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뒤 통계품질관리(Statistics Quality Management : SQM)를 실시하여, 양질의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의 법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목적에 적합한 조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자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자활 패러다임의 전환 : 정서적 자활과 자활 행동을 중심으로

최상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1. 자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전통적 접근, 그리고 자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 사업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근로빈곤층, 저소득구직자들이 원하는 자활,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 없이 자활은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바탕으로 매출액, 수익, 취창업, 탈수급, 취창업 유지와 같은 경제적 결과로 이해된 것이 자활에 대한 주된 접근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근로 조건 부과 없이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지향하는 제도로서 존재해왔다.

그러나 자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경제적 결과 중심의 자활사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의 지속, 경기침체 및 고실업의 장기화, 노동시장 유연화, 불안정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확대와 같은 사회 구조적 변화는 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성취하는 것을 점차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국민취업제도의 시행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자활사업 내 근로미약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경제적 결과 중심 자활 성과를 입증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자들이 가지는 건강, 심리정서적, 사회적, 주거, 재무적, 법적, 근로능력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욕구와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낮은 일반시장에의 취창업률, 낮은 탈수급률을 보여왔는데 일부는 노동 시장 및 참여자 특성에, 다른 일부는 자활사업의 평가가 자활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즉 자활 현장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의 내용을 경제적 결과와 실적 중심의 평가가 충분히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노대명, 2008; 이인재, 2010; 최상미, 2018). 경제적 측면의 결과로만 이해해 온 자활에 대한 전통적 접근은 참여자가 자활이 되어가는 과정, 근로와 취창업을 위해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와 욕구를 간과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탈수급을 해서 자활에서 나가더라도 다시 자활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과 자활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자 중심과 실적 중심 사업 수행 사이에서 딜레마를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최상미, 2018).

경제적 결과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련의 연구자들은 자활에 대한 과정적, 포괄적,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노대명, 2006; 김인숙, 2008; 정원오·김진구, 2005; 엄태영, 2014;

최상미, 2017, 2018).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경제적 측면 외에 심리·정서적, 사회적 측면, 일상생활 회복 측면을 포함할 것을 제안(정원오·김진구, 2005; 엄태영 외, 2008; 최상미, 2017; Hong et al., 2009)하였으며,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상의 변화 또한 자활의 중요한 부분(강남식 외, 2002; 이상록, 2003; 이형하·조원탁, 2004; 정원오·김진구, 2005; 송인한 외, 2013; 최상미, 2017; Daugherty & Barber, 2001; Hawkins, 2005)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상미와 동료들(최상미, 2017; 최상미, 2018; 최상미 외, 2017; 최상미·홍송이, 2018; 최상미, 2019; 최상미·고가영, 2019)은 일련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심리·정서적, 사회적, 일상생활적 측면을 포괄하는 참여자들이 자활이 되어가는 과정은 경제적 자활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자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활의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은 크게 자활 개념의 재구성(Daugherty & Barber, 2001; Hawkins, 2005; 김인숙, 2008; 최상미, 2018; 최상미·홍송이, 2018), 과정적·정서적 자활 지표 개발(Hong et al., 2014a, 2014b; 엄태영, 2014; 최상미, 2017), 자활 과정에 대한 탐구(이상록, 2003; 정원오·김진구, 2005; Hong, Choi, & Key, 2017; 최상미·고가영, 2019) 등이 수행되어왔는데, 여기서는 정서적 자활 지표를 간단히 소개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실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자활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정서적 자활과 자활 행동

### 1) 현장의 시각으로부터의 자활 개념 재구성

전통적인 자활에 대한 이해가 제도적 의도만을 반영하고 현장의 시각을 간과해왔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자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자활사업 참여자와 실무자의 시각, 즉 현장의 자활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활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 7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참여자들은 일자리와 취창업 등 경제적 측면 외에도 자신감 회복, 삶과 근로에 대한 의지와 동기부여와 같은 정서적 역량강화, 직업 역량강화, 일상생활 회복, 사회적 지지망 형성 등 경제적 자활을 위한 과정 상의 다양한 측면 또한 자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최상미, 2018). 한편 현장의 시각으로부터 자활을 이해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서 자활사업 실무자 35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활실무자들은 자활을 근로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 지원인 동시에 정서적 역량강화와 동기부여, 근로장벽 극복과 같은 정서적 측면, 사회적 관계 형성과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측면, 그리고 삶의 회복과 주체적 삶을 위한 통합적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최상미·홍송이, 2018).

즉 아래 <그림 II-1>과 같이 자활사업 참여자와 실무자는 유사하게 자활을 일자리와 자립, 정서적, 사회적, 일상생활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자활은 일자리와 취창업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정서적, 사회적, 일상생활적 측면에서의 역량강화의 과정을 포괄함을 의미한다.

〈그림 II-1〉 자활사업 참여자와 실무자들이 이해하는 자활

참여자대상 심층면접 결과		현장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	
증거주	대범주	대범주	증거주
1) 일자리 제공	1. 경제적 자활 생활유지를 위해 강요된 수동적 일자리	1. 경제적 자활 근로를 위한 자립지원과 경제적 자 활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	1)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로 및 사업단 일자리 제공
2) 수동적 일자리			2) 경제적 자립(경제적 목표 성취)을 위한 과정
3) 미래가 없는 일자리			3) 근로 희망: 다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4) 강요되는 취업			4) 근로 장벽 완화: 근로 여건 및 환경 조성
5) 정서적 역량 강화	2. 정서적 자활 역량강화를 통해 다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	2. 정서적 자활 근로 희망 고취와 근로 장벽 완화	5) 사회적 관계 형성(회복)
6) 직업적 역량 강화			6) 사회통합
7) 사회적 지지망 형성	3. 사회적 자활 사회적 관계 회복 및 강화	3. 사회적 자활 사회적 관계 형성과 회복	7) 주체적 삶을 위한 통합지원
8) 일상 생활 회복			8) 자원연계
최상미 2018. 이용자중심적 관점으로부터의 자활에 대한 재개념화: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최상미·홍승이 2018. 현장의 시각으로부터 구조화된 자활 개념 탐색: 자활 사업 실무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 2) 자활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일련의 연구들은 자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자활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 제안하였다(엄태영, 2014; 최상미, 2017, 2019; 최상미·고가영, 2019; 김경희 외, 2022; Gowdy & Peralmutter, 1993; Hong et al., 2014a, 2014b). 아래 〈그림 II-2〉에서 볼 수 있듯이 최상미(2017)는 현장이 이해하는 자활 개념으로부터 정서적 역량강화와 재정적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4개 차원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고용희망 척도를 개발, 제안하였다. 고용희망 척도와 함께 정서적 자활을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을 경제적 자활을 위해 장벽을 완화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자활 실무자들에 대한 인터뷰로부터 7개 차원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고용장벽 척도를 개발하였다(최상미·고가영, 2019). 또한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으로 구성된 정서적 자활을 통해 경제적 자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차적 성취로서 자활행동 상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활행동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자활행동 척도를 개발하고, 고용희망이 자활행동을 매개로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활 과정에 대한 이론 모델을 검증하였다(최상미, 2019).

〈그림 II-2〉 정서적 자활 및 과정적 자활 척도 개발



최상미와 동료들(최상미, 2017; 최상미·고가영, 2019; 최상미, 2019)에 의해 제안된 정서적 자활 척도와 자활행동 척도는 추후 정교한 척도 타당도 검증(김경휘 외, 2021)을 통해 고용장벽과 자활행동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활의지, 고용장벽, 자활행동의 3개영역, 11개 차원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과정적 자활 척도로 개발, 타당도가 검증되었다(〈그림 II-3〉 참조).

〈그림 II-3〉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재구성을 통한 과정적 자활 성과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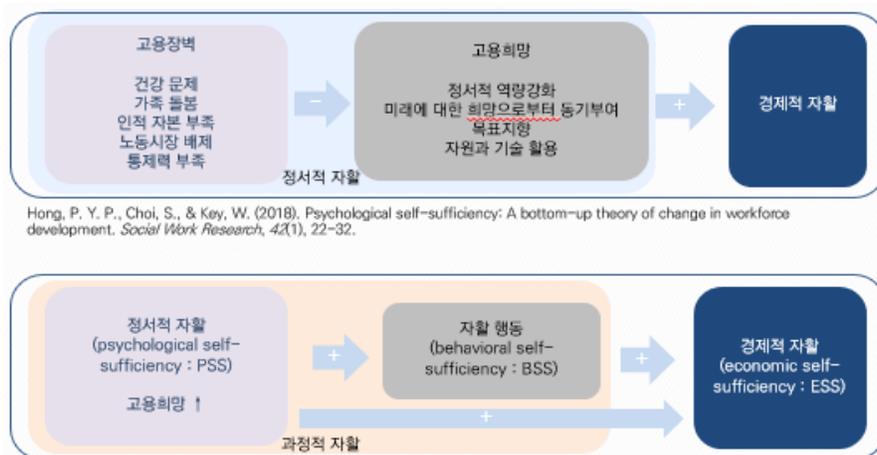


김경휘, 최상미, 조성희, 한은영, 박송이, 2021. 자활사업 참여 효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

### 3) 자활 과정에 대한 이론 모델 제안과 검증

한편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의 정적 관계, 즉 고용장벽과 고용희망으로 구성된 정서적 자활이 경제적 자활에 기여하며(Hong, Choi, & Key, 2018),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 간의 관계를 자활행동이 매개한다는 이론 모델(최상미, 2019)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아래 〈그림 II-4〉 참조). 정서적 자활, 자활 행동, 경제적 자활 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실증적 검증 결과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서적 자활과 자활 행동이 중요한 단계적 성취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자활사업에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및 자활 행동 향상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그림 II-4〉 정서적 자활, 자활행동, 경제적 자활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모델과 검증



Hong, P. Y. P., Choi, S., & Key, W. (2018). Psychological self-sufficiency: A bottom-up theory of change in workforce development. *Social Work Research, 42*(1), 22-32.

최상미 (2019) 자활 행동 척도 개발과 자활 과정에 대한 이해: 정서적 자활 이론의 확장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지*, 21(3) : 75-100

### 3. 자활사업 참여자의 과정적 자활 실태: 2022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2022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고용희망, 고용장벽으로 구성된 정서적 자활과 자활 행동의 실태를 김경휘 외(2021)에서 제안한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자활 실태를 정서적 자활(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행동 순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이 세 가지 변수의 총합을 과정적 자활로 개념화하고 과정적 자활 정도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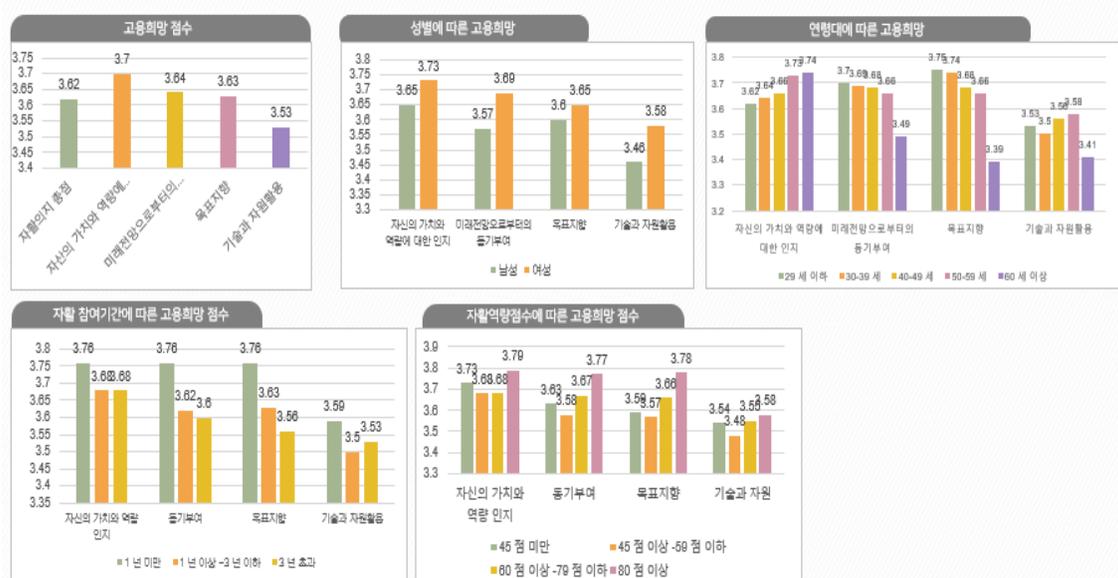
#### 1) 고용희망(자활의지)

정서적 자활의 한 축을 구성하는 고용희망은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부터의 동기부여, 목표지향, 기술과 자원활용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된다. 고용희망 총점은 '3.62점/5점'으로 '보통(3점)'과 '그렇다(4점)'의 사이 정도로 나타났으며, 차원별로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가 3.7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동기부여 3.64점, 목표지향 3.63점, 기술과 자원활용 3.53점으로 조사되었다(아래 <그림 II-5> 참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스스로를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고용희망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차원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점수가 낮아 20~30대 청년이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정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자활역량점수에 따른 고용희망 점수 분석 결과,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부터의 동기부여', '목표지향', '기술과 자원활용' 모두 역량점수 높을수록 높았으며, 참여 사업단 유형 중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도우미사업단, 시장진입형 참여자의 고용희망 정도가 높은 반면,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 점수 낮게 나타났다. 자활참여기간에 따른 고용희망 점수의 경우 참여기간이 길수록 고용희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대체로 1년 미만과 1년 이상 참여자들 간 차이에 기인한다.

<그림 II-5>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에 따른 고용희망 실태



## 2) 고용장벽

정서적 자활의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고용장벽은 인적자본충분 정도와 정보활용 정도의 2개 차원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장벽 정도가 낮음을, 즉 고용장벽 완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고용장벽 총점은 '3.19점/5점'으로 '보통' 수준, 하위 차원별로는 '정보활용 정도'가 3.0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인적자본 충분정도'는 3.3점이다(아래 <그림 II-6> 참조).

학력이 낮을수록, 스스로를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고용장벽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 연령, 건강이 고용장벽의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연령 참여자들의 경우 정보활용을 고용장벽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높았다.

한편 자활역량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고용장벽 정도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사업단 유형 중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도우미사업단, 시장진입형 참여자가 고용장벽을 덜 가진다고 인지하였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고용장벽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6>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에 따른 고용장벽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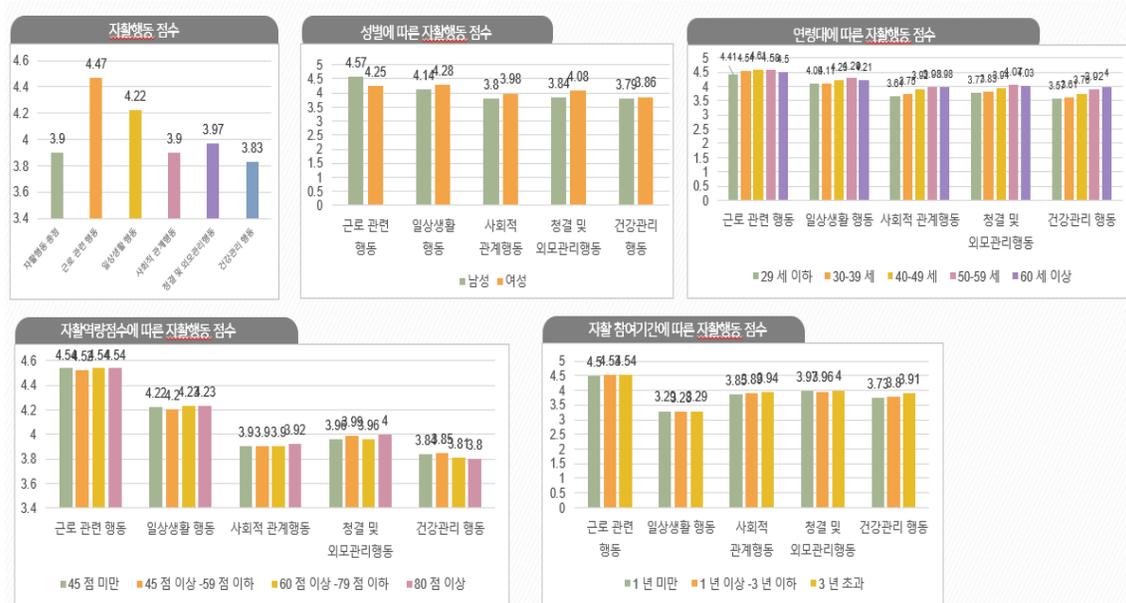


## 3) 자활행동

자활행동은 정서적 자활이 경제적 자활로 가는 데 있어서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적 자활로 가는 단계적 성취, 과정적 성취로 볼 수 있다. 자활행동은 근로관련행동, 일상생활행동, 사회적관계행동, 청결 및 외모관리행동, 건강관리행동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되며, 자활행동 총점은 '3.9점'으로 '그렇다(4점)'에 가까운 정도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근로관련행동(4.47점)과 일상생활행동(4.22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건강관리행동(3.83점)은 상대적으로 낮다(아래 <그림 II-7> 참조).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자활행동 수준이 낮았으며, 학력 정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활역량점수에 따른 자활행동 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활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행동 수준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 정서적 자활보다 사업단에서의 근로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활행동에 긍정적 영향 미침을 의미하며, 이는 자활의 중요한 성과이기도 하다.

〈그림 II-7〉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에 따른 자활행동 실태



#### 4) 과정적 자활(정서적 자활과 자활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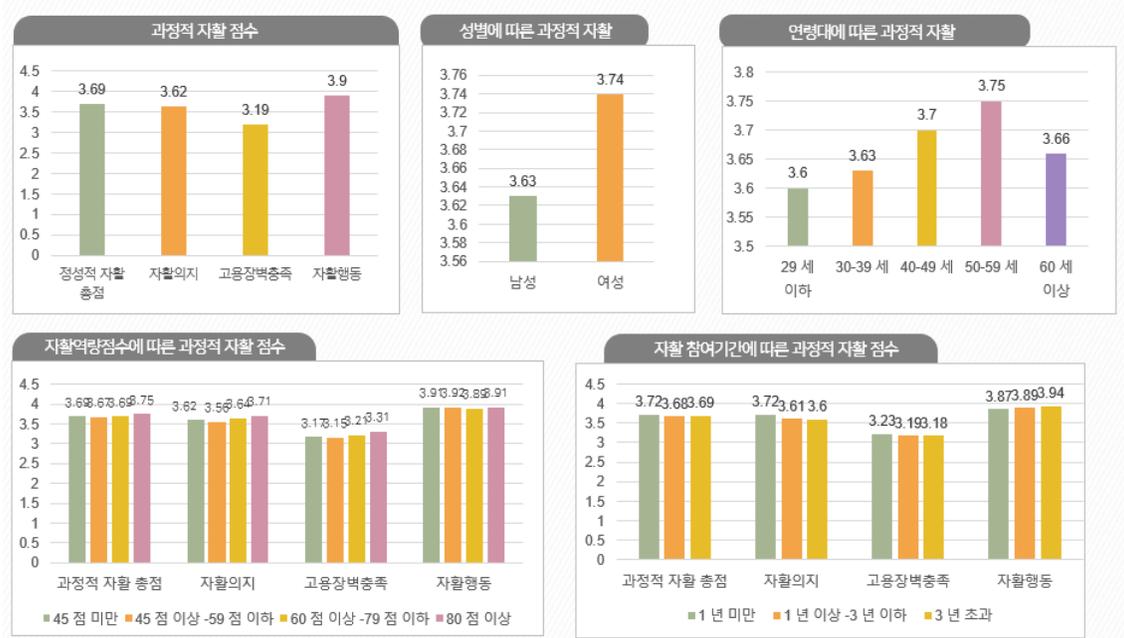
고용희망, 고용장벽과 자활 행동으로 구성되는 과정적 자활의 평균 점수는 ‘3.69점’으로 ‘보통(3점)’과 ‘그렇다(4점)’의 사이 정도이며, 앞서 논의하였듯이 고용장벽 완화 정도(3.19점)가 가장 낮은 반면 자활행동 정도(3.90점)는 상대적으로 높다(아래 <그림 II-8> 참조).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자활이 되어있는 정도는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청년(20~30대)이나 노년(60세 이상)에 비해 40~50대 장년층이, 학력 높을수록, 건강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30대 청년의 경우 자신감, 효능감과 유사한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수준 및 자활 행동 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자활역량 점수에 따라 80점 이상의 경우에는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80점 이하에서는 점수 구간별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활역량점수가 과정적 자활 요소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중간 이하의 자활역량점수를 보이는 참여자들은 유사한 과정적 자활 특성 가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활참여 기간이 긴 참여자일수록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자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에 기인한다. 즉 자활참여 기간이 긴 참여자일수록 고용희망 정도가 낮고 고용장벽을 높게 인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만만치 않은 고용시장과 상황을 알게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자활에 안주하고 자립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잃어감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자활참여기간이 긴 참여자일수록 자활행동 값은 높아 자활사업 참여가 자활행동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에 따른 과정적 자활(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행동) 실태



#### 4. 자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앞서 논의하였듯이 자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자활사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실태조사 결과로부터 자활사업의 변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과정적, 통합적 접근. 자활은 전통적으로 집중해 온 경제적 측면의 결과와 함께 참여자들이 자활되어가는 과정을 포괄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자들의 자활 과정은 심리정서적, 사회적, 일상생활적,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다. 이에 다차원적 차원의 개입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정서적 자활 향상을 위한 실천적 개입.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현재의 자활 사업은 자활행동 향상에는 기여하는 반면, 고용희망 향상 및 고용장벽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측면 결과에 초점을 둔 전통적 접근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활이 되어가는 과정 상에서 참여자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개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최근 고용 시장 경직화 및 근로미약자 비중의 증가와 같은 환경적 변화와 함께 참여자들이 자활에 안주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참여자들의 자활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체계화, 사례관리 강화,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등 정서적 자활 향상을 위한 개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개인별 차별화된 맞춤형 접근. 실태조사 결과는 성별, 학력별, 연령대별, 참여사업단별,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욕구와 자원이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별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드러내며, 맞춤형 개입을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자활사업은 앞서 논의하였듯이, 전통적인 제도적 목적, 경제적 결과, 근로 중심에서 과정 중심, 이용자 중심, 다차원적 욕구 대응, 근로와 복지의 균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개선.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자활 행동 등 과정적 변화도 자활사업 및 자활

센터의 성과로 잡힐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자활역량평가 지표 구성과 활용 제고. 실태조사는 자활역량평가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자활 정도, 즉 과정적 자활 성과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가짐을 드러내었다. 이에 자활역량평가 지표 구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참여자의 성장과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일 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활용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활사업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 자활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 사업이나, 전통적으로 근로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으며 여전히 근로에 많은 비중이 치우쳐져 있다. 그러나 최근 자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복지기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근로연계복지 사업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복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결과 중심, 제도적 목적 중심에서 보다 참여자 중심, 참여자 욕구 대응, 과정 중심, 가족지원, 통합지원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활사업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해 정책, 학계, 현장이 함께하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 여성조건부 수급자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1), 43-71
- 김경휘·최상미·조성희·한은영·박송이, 2021. 자활사업 참여 효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인숙. (2008).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 성매매여성 자활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 95-129.
- 노대명. (2006). 자활사업 그 성과와 과제: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좌담회. 자활사업종합보고서,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157-178.
- 노대명. (2008). "자활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44, 7-20.
- 송인한, 김태형, 권세원, 이한나, 박장호. (2013). 경제적 자활 척도 (ESS) 와 근로희망 척도 (WHS) 의 국내 적용: 자활의 포괄적 이해를 위한 척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3), 31-64.
- 엄태영, 김동기, 허미경. (2008).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지지가 여성 자활근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1-24.
- 엄태영. (2014). "정서적 자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1(4), 81-102
- 이인재. (2010)."자활 프로그램 개편의 의의와 주요 내용", 월간 복지동향, 146, 9-14.정원오·김진구, 2005;
- 이상록. (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1, 105-136.
- 이형하, 조원탁. (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217-244.
- 정원오·김진구. (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35-67
- 최상미. (2017).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 (Korean Employment Hope Scale: K-EHS) 개발과 타당도 검증".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 최상미·홍영표·김한성. (2017). "한국형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시행과 효과성 평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4), 179-199.
- 최상미. (2018). "이용자중심적 관점으로부터의 자활에 대한 재개념화".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5(1), 98-124.

- 최상미, 홍송이. (2018). 현장의 시각으로부터 구조화된 자활 개념 탐색 연구: 자활사업 실무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3), 5-33.
- 최상미. (2019). 자활행동 (behavioral self-sufficiency: BSS) 척도 개발과 자활 과정에 대한 이해: 정서적 자활 이론의 확장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3), 75-100.
- 최상미, 고가영. (2019).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 구직자의 고용장벽 탐색과 한국형 고용장벽 척도 개발. *사회복지연구*, 50(2), 29-52.
- Daugherty, R.H., & Barber, G.M. (2001). Self-Sufficiency, Ecology of Work, and Welfare Reform. *Social Service Review*, 75(4), 662-675. doi: 10.1086/323167
- Gowdy, E. A. and Pearlmutter, S. (1993). Economic self-sufficiency: it's not just money, *Affilia*, 8(4), 368-387.
- Hawkins, R. L. (2005). From self-sufficiency to personal and family sustainability: A new paradigm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2, 77-92.
- Hong, P. Y. P., Sheriff, V. A. and Naeger, S. R. (2009). A bottom-up definition of self-sufficiency: Voices from low-income jobseekers, *Qualitative Social Work*, 8(3), 357-376.
- Hong, P. Y. P., Choi, S., & Polanin, J. R. (2014a). A multi-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hort Employment Hope Scale (EHS-14).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0(3), 339-352.
- Hong, P. Y. P., Polanin, J. R., Key, W., & Choi, S. (2014b).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PEBS): Measuring psychological self-sufficienc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6), 689-706.
- Hong, P.Y.P., Choi, S., & Key, W. (2018). Psychological self-sufficiency: A core theory of change in workforce development. *Social Work Research*, 42(1), 22-32.